

# 법원,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결정’

수원지법, 이르면 3월 재심리

法 “이춘재 자백진술 신빙성 있어”

법원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을 재심하기로 결정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찬)는 14일 8차 사건으로 살인 등 혐의로 20년간 육살이를 한 윤모씨(52)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수원지법은 “이춘재가 수사기관

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이 이 사건 진범이라는 취지의 자백진술을 하는 등 여려 증거들을 종합하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이는 윤씨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된다”고 말 했다.

재판부는 내달 초께 공판일정

과 검찰, 변호인 층 입증계획을 정 리하는 공판준비기일을 마련하고 이르면 3월에 재심공판 기일을 지정해 본격적으로 이춘재 8차 사건에 대한 재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1월13일 윤씨는 형사소송법 제 420조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제5호) △수사기 관의 직무상 범죄(제 1·7호) 등에 따라 법원에 재심청구를 신청했다.

윤씨는 ‘재심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는 형사법 제 423 조에 따라 자신에 대한 원판결이

내려진 수원지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양(당시 13세)이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목이 졸려 살해된 사건이다.

이때 사건현장에서 체모 8점이 발견됐고, 경찰은 윤씨를 범인으로 특정해 조사를 벌였다. 이후 윤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하다가 20년형으로 감형돼 2009년 청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뉴스1

## ‘盧 논두렁 시계 논란’

이인규 최근 검찰조사

‘국정원 개입’ 취지 진술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하며 ‘논두렁 시계 기획보도’ 논란에 휘말렸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장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현)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 전 부장은 진술서에서 해당 보도는 본인이 아닌 국가정보원의 개입으로 이뤄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장은 ‘논두렁 시계 보도’를 본인 등 검찰이 기획했다는 의혹에 대해 2017년 11월과 지난해 6월 거듭 정면 부인 취지의 입장문을 낸 바 있다.

이 전 부장은 지난 2018년 논두렁 시계 보도와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과 SBS의 인연 등을 고려할 때 보도 배후에 국정원이 있다는 심증을 굳하게 됐다”는 발언을 했다가 해당 방송사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그는 2018년 6월 미국에서 입장문을 내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이른바 ‘논두렁 시계 보도’를 자신이 기획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배후로 당시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국정원장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저에게 직원을 보내 것 이외에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에게도 직접

전화를 걸어 ‘노 전 대통령의 시

계 수수 사실을 언론에 흘려 망신

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

인했다가 거절 당한 적도 있었다’

고 주장했다.



설 열흘 앞두고 열린 모란장

민족대명절 설을 열흘여 앞둔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모란시장에서 상인들이 제수를 판매하고 있다.

## “동물 키우려면 교육부터 받으세요”…농식품부, 인식개선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가 성숙한 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생명 존중 교육 등 국민 인식개선에 주력할 방침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14일 동물보호·복지 정책 방향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년~2024년)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동물 소유자 의무교육 확대 △동물학대 방지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등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공감을 제고 할 계획이다.

특히 동물보호·복지 의무교육 확대를 추진과제로 삼아 반려동물

임양 전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고 ‘동물보호의 날’을 법률로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서는 대국민, 반려동물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동물 영업자를 통한 동물 임양 전 교육이수를 의무화하고, 대국민 동물보호·복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동물 보호·복지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교육부 등 관계부처 협

의를 통해 초·중·고교 정규 교육과정으로 활용, 동물복지 인식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매년 특정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해 동물보호·복지 교육·홍보 캠페인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뿐 아니라 농장동물에 대한 동물복지 개선 의무교육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축산 하가·등록 농가 대상 교육에 농장동물을 복지 수준 제고 교육을 현행 1시간에서 2 시간으로 늘리고 내실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뉴스1

###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 단신 ●

여수 조립식 가건물 화재…50대 숨진 채 발견

14일 오전 5시29분쯤 전남 여수시 율촌면의 한 조립식 가건물에서 불이 났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이날 6시30분쯤 꺼졌지만 이곳에 사는 A씨(56)가 불에 탄 잔해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A씨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SNS로 만난 남성 잠들자 금반지 들고 출행량

광주 서부경찰서는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난 남성의 금반지를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A씨(20·여)를 불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전 4시30분쯤 광주 서구 한 모텔에서 함께 투숙했던 B씨(24)의 73만원 상당의 금반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타지역에 거주하는 B씨는 SNS를 통해 광주에 있는 A씨와 만나게 됐고 이날 함께 술을 마고 투숙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모텔에서 잠이 들자 택시에 놓인 금반지를 가지고 달아났다가 범행 일주일만에 경찰에 널미를 잡혔다. A씨는 “순간 욕심이 나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한 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남친 사진 때문에 싸운 러시아 커플 입건

휴대전화에 있는 전 남자친구 사진으로 시비가 붙어 주먹과 흉기를 휘두른 러시아 국적 연인이 나란히 입건됐다. 완도경찰서는 13일 오후 3시쯤 전남 완도군 완도읍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러시아 국적의 A씨(41·여)를 긴급체포했다. 러시아인 남자친구 B씨(36)도 A씨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함께 입건됐다. 이들은 이날 함께 술을 마시다 A씨의 휴대전화에 있는 전 남자친구의 사진으로 다투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밀다툼이 격해지자 B씨가 A씨를 주먹으로 마구 폭행했고 A씨가 이에 저항해 B씨를 향해 흉기를 향자례 휘둘렀다. 흉기에 찔린 B씨가 모텔 밖으로 대피했고 피를 흘리고 있는 B씨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상해를 입은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A씨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6년 전 여행 비자로 입국해 현재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한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용직 노동을 하며 한국에서 생계를 이어왔고 범행이 발생한 모텔에서 함께 동거를 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하룻밤 새 553건 112 허위신고 정신질환 30대 女

하룻밤 새 550여건의 112 허위신고를 한 30대가 경찰에 불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4일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혐의로 A씨(38·여)를 불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30분쯤부터 새벽까지 112에 전화를 걸어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끊는 등 모두 553차례 허위 신고한 혐의다.

A씨는 수년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보호자와 함께 병원을 찾은 상태”라며 “112 전화 이유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증정 건설**